

공동체 회복을 통한 연결의 교육

인구소멸 시대, 농촌 교육의 방향을 찾다

부안청년건강모임 | 유수정 대표 | @B_healthcommun | yuchrystal@gmail.com



INTRO

SINCE 1993년(33세)

SPEAKER 유수정

함께 살고 싶은 사람, 유수정입니다

저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믿고 지키기 위해 부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부안에서 나고자란 **청소년**이었으며, 현재 **청년**이고, 앞으로 **중년**, **노인**이 되어갈 시민 당사자입니다.
청년들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청년놀이터 **부안청년건강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당사자로서 지역 의제를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까지,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미술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이자, 평생학습 교육 **수강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부안군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 꿈꿉니다.



CONTENTS

01

청년이 바라보는 부안 교육현안

청년이 바라보는 부안 교육의 터닝포인트

02

왜 농촌공동체인가?

03

공동체 회복을 통한 연결의 교육

04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정책 제안

05

기대효과

01

청년이 바라보는 불안 교육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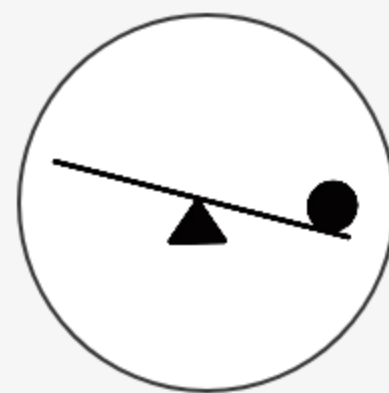
인구소멸지역

농업 기반 시골 지역의 현실
기회와 자원의 소멸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 살 이유' 부재

부안형 라이프 스타일(롤모델) 부재
'대학 부재' - 청년 인구 유출



지역간 교육 격차

도시, 읍·면 교육 여건 차이 존재
학원 부족, 폐업
놀이 시설 부재

01

청년이 바라보는 부안 교육의 터닝포인트



지역 공동체

농업 지역의 공동체성
사회적 안전망



풍부한 역사·문화 천연 자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
살아있는 현장 교육
생태 경험의 차이



엘리트주의 교육의 전환

민주 시민 육성의 필요성
공감, 교류하는 교육의 필요성

왜 농촌공동체인가?



KEY POINTS

세대 단절, 이웃 단절, 소통 단절의 시대를 극복

- ⊙농업은 생산뿐 아니라 협업과 계절, 생명, 관계의 교육
- ⊙농촌은 아이들에게 '돌봄'과 '참여'를 실감할 수 있는 무대
- ⊙마을 단위의 삶은 교육 그 자체가 될 수 있음
- ⊙전통적인 농업 공동체의 '연결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아이들이 경험할 기회 제공

Keyword 협력, 이웃, 마을, 생태, 계절 순환, 현장 교육

POINT. 01

지역 정체성 회복

새로운 정체성을 억지로 부여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과 전통, 문화적 명맥에 대한 발굴과 현대적 해석이 필요.

군과 도시재생, 문화재단 등의 협업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전할 지역 가치 재생

POINT. 02

함께 살아가는 감각 경험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갈까?

부안읍 지역은 마치 현대 도시 지역과 같은 단절을 경험하고 있음.

다른 세대, 작은 마을 아이들과의 교류 필요. (ex-도농교류, 읍-면 학교 교류)

POINT. 03

지역 자원 기반 '살아있는 교육'

지역의 산업과 전통, 문화의 명맥이 미래 세대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하기.

'농업', '역사'(지역 설화, 인물), '예술'(지역 미술, 공예, 음악)

연결 자원 : 청자박물관, 농악전수관, 콩닥콩닥 한지학교,

마을 공동체, 농업인 조합, 청년 및 예술인 모임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정책 제안

01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적
현장을 '배움의 장'으로 전환

- 마을
- 변산반도 국립공원
- 부안 청자
- 콩닥콩닥 한지체험장
- 이야기 자원

02

지역 산업 연계 교육

- 농업 (단순 모내기 체험에서 벗어나, 생태 교육과 6차 가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 염전
- 로컬푸드
- 농악, 전통 공예 체험

03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의 교류

- 작은 학교 연계 체육대회
- 작은 학교 축제 교류
- 지역 청년 멘토링, 교류, 동아리
- 읍면민의 날 행사 등 지역 축제와 학사일정 연계

04

마을 자치 참여

- 지역 정치에서 아이들 또한 주체로 활동
- 청소년 정책 포럼
- 마을 자치위원회 청소년 위원 신설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지역 공동체 경험 마련

01

**지역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 고취**

지역의 전통성을 배우고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체득



02

살아있는 지역 경험 제공

아이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알고, 어
르신들과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지역의 일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



03

지역 공동체 형성

교육을 통한 공동체 회복
지역의 지속 가능성 강화



04

마을과 학교의 연결

청소년의 지역 참여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직접 체험하고 해결
하는 자치 효능감, 소속감 고취



감사합니다.

부안청년건강모임 | 유수정 대표 | @B_healthcommun | yuchrystal@gmail.com

